

濟州道輸出産業의 實態와 育成方向

金文瑄** · 高昶杓***

目 次

- 一. 序
 - 1. 研究의 目的
 - 2. 研究의 方法과 範圍
- 二. 濟州道의 産業構造와 特性
 - 1. 濟州道의 自然環境
 - 2. 濟州地域의 産業構造와 特性
- 三. 濟州道 輸出産業의 實態
 - 1. 濟州道 輸出에 대한 概觀
 - 2. 品目別 輸出實積의 推移 및 現況
 - 3. 業體別 輸出現況
 - 4. 地域別 輸出現況
 - 5. 濟州道 輸出의 特性과 問題點
- 四. 濟州道 輸出産業의 育成方向
 - 1. 감귤의 輸出産業化
 - 2. 水産物의 輸出基盤 強化
 - 3. 觀光土産品의 輸出商品化
 - 4. 輸出業體에 대한 支援強化
 - 5. 戰略的 輸出産業의 育成
- 五. 結 論

* 이 論文은 1988 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해 研究되었음.

** 經商大學 貿易學科 敎授

*** " " 副敎授

一. 序

1. 研究의 目的

우리나라는 賦存資源이 貧弱하고 過度한 人口密度와 限定된 土地資源과 資本과 技術의 未備라는 不利한 經濟的 與件 속에서 工業部門의 雇傭效果와 所得 및 生産誘發效果를 考慮하여 A. O. Hirschman의 不均衡成長理論 (theory of unbalanced growth) 에 입각하여 1960 年代初부터 對外指向의 工業化政策을 強力히 추진한 結果 年平均 8~9%의 經濟成長率과 年平均 約 30%의 輸出增加率을 示顯함으로써 驚異의인 經濟的 發展을 이룩하였다. 이는 輸出드라이브政策을 주축으로 한 對外指向的 經濟開發戰略의 效率的 추진의 結果이며 우리나라 經濟環境의 與件上 輸出의 重要性을 實證하고 있는 것이다.

輸出主導的 經濟發展戰略은 韓國經濟에 있어서 全體의인 富의 增大와 産業構造의 高度化 및 國民의 厚生을 增大시켰으나 우리나라 經濟의 對外依存度를 深化시켰을 뿐만 아니라 對內的으로는 地域間, 産業間, 階層間의 不均衡을 加重시키고 富의 偏在現狀을 露呈시킴으로서 政治 經濟 社會的으로 많은 問題들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際貿易環境의 變化와 함께 韓國經濟成長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經濟發展에 있어서 地域間의 不均衡問題는 韓國經濟의 安定과 國民의 福祉增進을 위해서도 時急히 先決해야 될 課題인 것이다. 좁은 國土에서 國民의 厚生을 增大시키기 위한 經濟發展戰略은 輸出指向의 일 수 밖에 없는 現實을 認識할 때 輸出産業은 持續的으로 積極 育成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地方輸出産業의 保護 育成에 政策的 比重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이러한 觀點에서 濟州地域의 輸出産業實態를 分析考察하여 濟州道의 産業構造高度化를 위한 輸出産業育成的 可能性을 檢討함으로써 濟州道 輸出産業의 育成方向을 提示하고자 한다.

2. 研究의 方法과 範圍

本 研究은 크게 두 개의 領域으로 區分할 수 있는데 첫째 濟州道 産業構造와 特性을 考察하는 것과 둘째 濟州道 輸出産業의 實態를 分析하는 것으로서 終局的으로는 濟州地域經濟에 있어서 輸出産業의 現況을 살펴보고 濟州道의 産業構造高度化를 위한 輸出産業의 育成方向을 提示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本 研究은 濟州道라는 限定된 地域經濟를 研究對象으로 하고 있으며 構成內容을 보면 第 2 章에 濟州道 經濟構造와 特性을 産業構造를 中心으로 分析 考察하고 第 3 章에 濟州道 輸出産業의 實態에 關하여 分析하며 第 4 章에서는 濟州道輸出産業의 育成方向을 提示함으로써 本 研究의 終局적 의도를 달성코자 하고 있으며 第 5 章에서는 本 研究의 結論으로서 濟州道輸出産業의 育成을 위한 政策的 方案을 提案함으로써 本 研究을 마무리 짓고 있다.

本 研究을 위해 可能한 限 最新資料를 活用하고자 노력하였으나 濟州道 地域經濟에 關한 資料의 빈곤으로 研究業務遂行에 많은 애로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本 研究은 主로 文獻的 方法에 의존하였으며 參考된 主要資料를 살펴보면 經濟統計年報(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經濟企劃院), 1985年 産業聯關表(韓國銀行), 國民所得計定(韓國銀行), 濟州道統計年報(濟州道), 地方貿易環境實態와 活性化 方案(大韓商工會議所), 濟州經濟現況(濟州商工會議所), 貿易年鑑(韓國貿易協會) 等이다.

二. 濟州道 經濟構造와 特性

1. 濟州道の 自然環境

1) 位 置

濟州道는 韓半島의 西南端 東支那海의 北端에 위치하고 있는 絶해의 弧島로서 東經 126° 10'으로부터 127°에 이르고 北緯 33° 10'으로부터 33° 34'에 달하나 楸子群島 및 馬羅島를 포함하면 33° 05'으로부터 33° 40'에 위치해 있으며(表 1 참조) 隣接地와의 交通距離는 木浦間은 97 마일이고 부산과의 距離는 169 마일이며 日本 하판과의 距離는 235 마일로서(表 2 參照) 日本과 中國 上海의 中間지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圖 1 參照)

濟州道の 總面積은 1825 ㎞로서 全國土 面積의 1.8%에 해당하고 面積分布를 보면 임야가 53%로서 약 967 ㎞, 경작지가 28.6%로서 약 521 ㎞, 목장용지가 8.9%로서 약 163 ㎞, 岱地가 2.2% 기타 7.3%로 구분하여 利用되고 있으며(表 3 參照) 行政區域別 面積分布는 濟州市가 254 ㎞, 서귀포시가 263 ㎞, 북제주군이 703 ㎞, 남제주군이 603 ㎞로 되어 있다.(表 4 參照)

〈表 1〉 濟州道の 位置

구 분	위 치	地 名	좌 표	
			경 도	위 도
本 島	극 동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	126° 56' 57"	33° 27' 12"
	극 서	북제주군 한경읍 고산 (한장동)	126° 09' 47"	33° 17' 25"
	극 남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	126° 16' 21"	33° 11' 27"
	극 북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	126° 45' 48"	33° 33' 50"
附屬島嶼包含	극 동	북제주군 우도 조일 (비양도)	126° 58' 25"	33° 30' 44"
	극 서	북제주군 한경면 차귀도	126° 08' 45"	33° 18' 31"
	극 남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126° 16' 36"	33° 06' 23"
	극 북	북제주군 추자 시루여	126° 22' 08"	34° 00' 00"

資料：濟州道，濟州統計年報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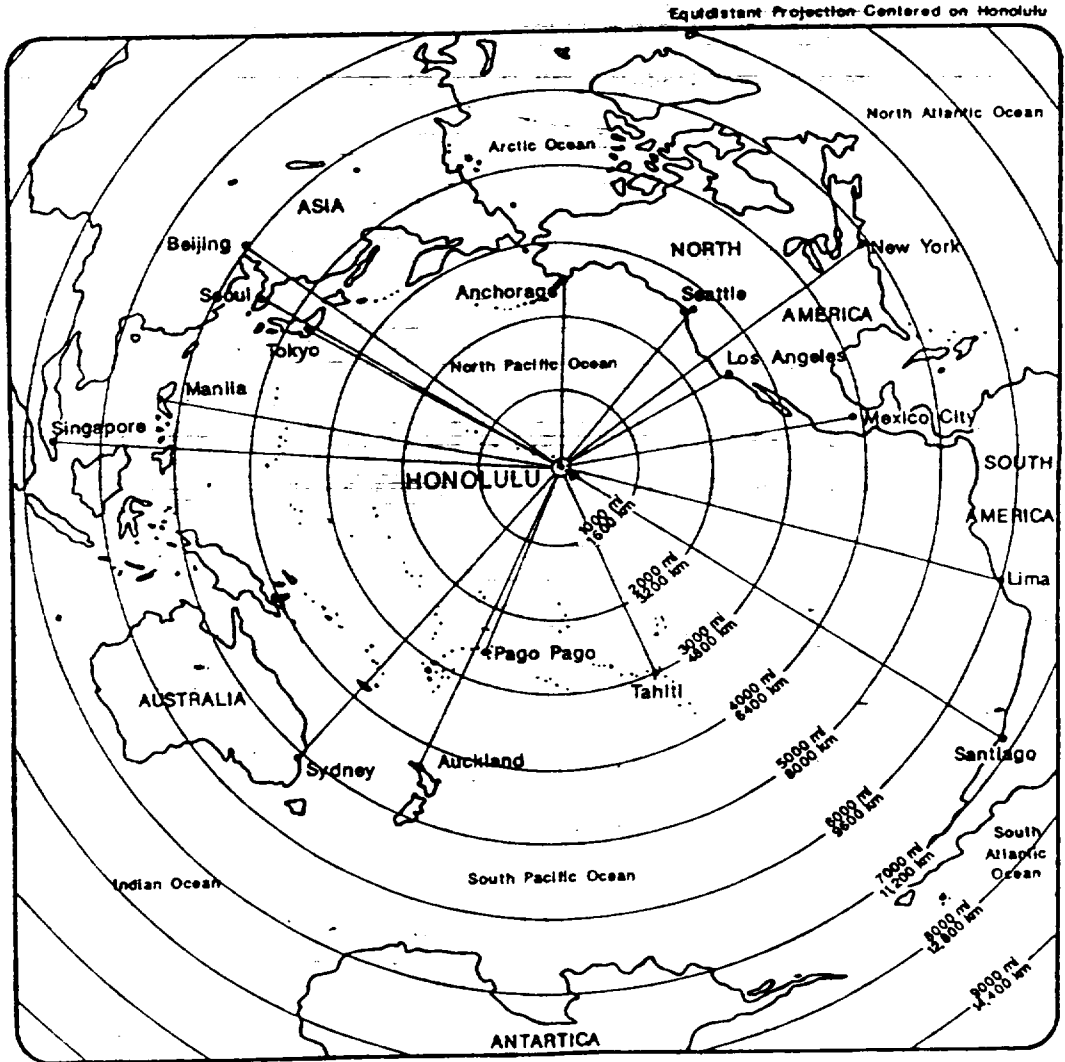
〈表 2〉 隣接地와의 距離

區 間	距離 (mile)	所 要 時 間	備 考
제 주 ↔ 목포	97	8	12 노트 / 시간
제 주 ↔ 부산	169	14	
제 주 ↔ 완도	56	5	
제 주 ↔ 여수	103	9	
제 주 ↔ 대마도	178	15	
제 주 ↔ 하관	235	20	

資料：濟州道，濟州道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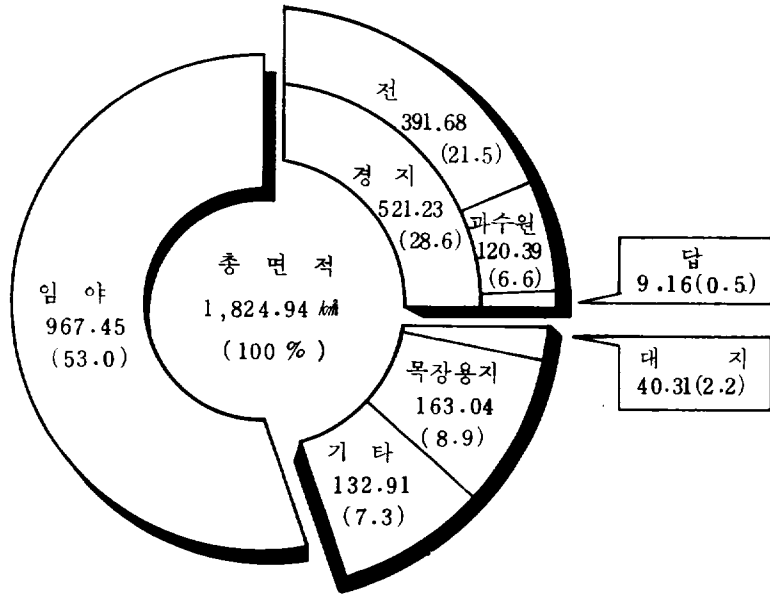
禹樂基，濟州道 (國民觀光 I)，韓國地理研究院 1980.

< 圖 1 > THE PACIFIC 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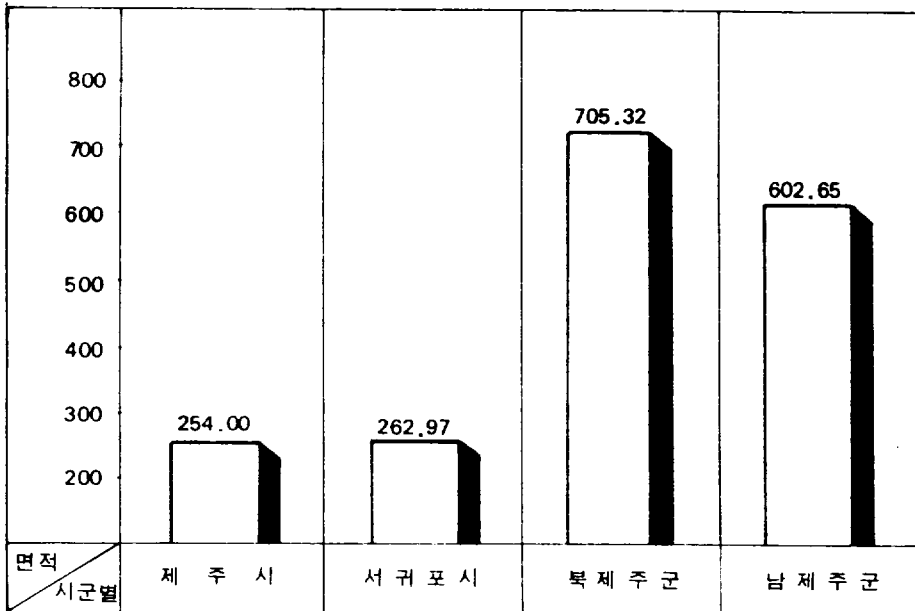
資料：濟州大學校 社會發展研究所，“社會發展研究 第5輯，p.260，1989.

〈表 3〉 濟州道の面積分布



資料：濟州道, 濟州道 統計年報, 1989.

〈表 4〉 濟州道の行政區域別面積



資料：濟州道, 濟州統計年報, 1989.

또한 濟州道는 253 km의 해안선과 62個의 附屬島嶼를 가지고 있는데 有人島 8個, 無人島 54個로서 1988年末 現在 附屬島嶼의 面積은 約 17 km이며 家口數 및 人口는 各各 2,087家口에 9,689名이 되고 있다. (表 5 參照)

〈表 5〉 해안선 및 도서현황

연별 및 시군별	해안선 (km)	도 서 수			면 적 (km ²)	가구수	인구수
		계	유인도	무인도			
1983	253	62	8	54	14,803	2,174	10,333
1984	253	62	8	54	14,803	2,167	10,098
1985	253	62	8	54	14,803	2,171	10,037
1986	253	62	8	54	14,803	2,134	9,857
1987	253	62	8	54	16,318	2,094	9,789
1988	253	62	8	54	17,046	2,087	9,689
제 주 시	...	-	-	-	-	-	-
서귀포시	...	7	-	7	0.451	-	-
북제주군	...	50	6	44	13.775	1,851	8,740
남제주군	...	5	2	3	2.820	236	949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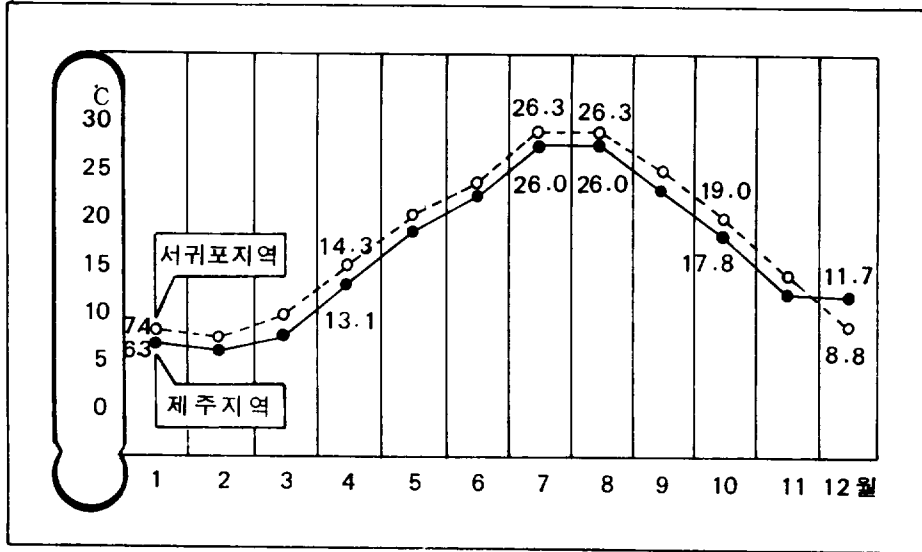
2) 氣候와 氣象

濟州道는 우리나라의 最南端에 위치한 大山島로서 四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대체로 海洋性 氣候의 特徵을 나타내고 있으며 南韓의 最高峰인 漢拏山이 中央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地形的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局地的으로 日氣가 多變하고 바람이 많으며 特히 漢拏山을 中心으로 한 山南과 山北 사이에는 相反되는 日氣現象을 보여 多樣한 局地氣象을 나타내고 있다.

特히 濟州道の 氣溫은 계절과 時間에 따라 變化하며 같은 緯度라 할지라도 地形과 地帶 또는 環境에 따라 變化하는 可變的 氣象要素를 갖고 있으며 (圖 2 參照) 降水量의 變化도 局地現象을 나타내고 (圖 3 參照) 四面環海의 孤島임과 同時에 中國 楊子江流域에서 發生하는 低氣壓의 通路에 위치하고 있어서 本道는 우리나라에서 바람의 피해가 비교적 많은 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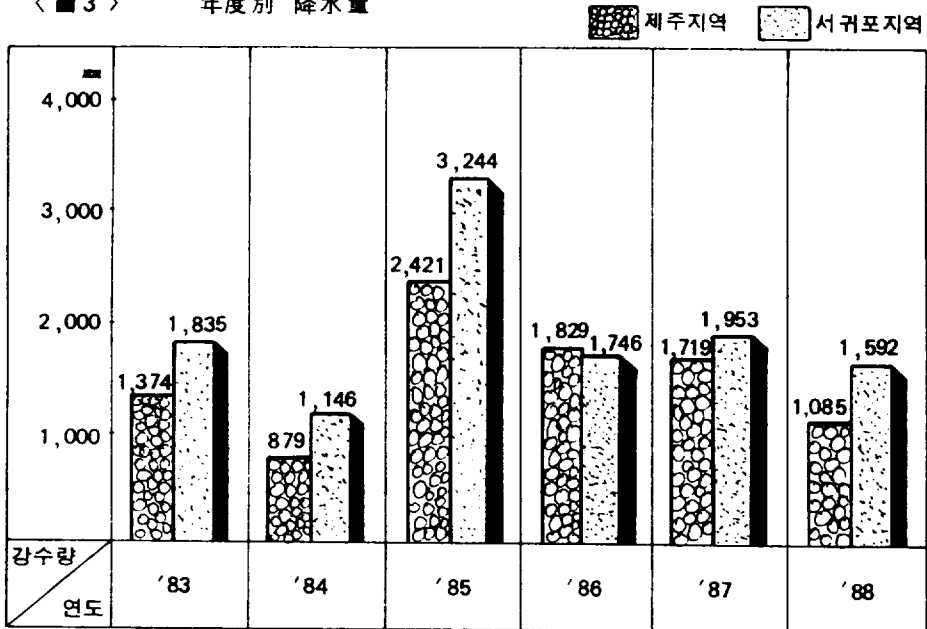
域이며 特히 濟州地域에는 年中 10 m/sec 以上の 바람이 부는 日數가 많아 農作物의 生育에 障礙가 되기도 한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山南地域이 山北地域보다 溫暖하고 비교적 바람이 적어 施設園藝나 아열대 作物 等に 유리하다고 하겠다.

< 圖 2 > 濟州地域 平均氣溫



資料： 濟州道, 濟州統計年報 1989.

< 圖 3 > 年度別 降水量



資料： 濟州道, 濟州統計年報 1989.

2. 濟州道の 産業構造와 特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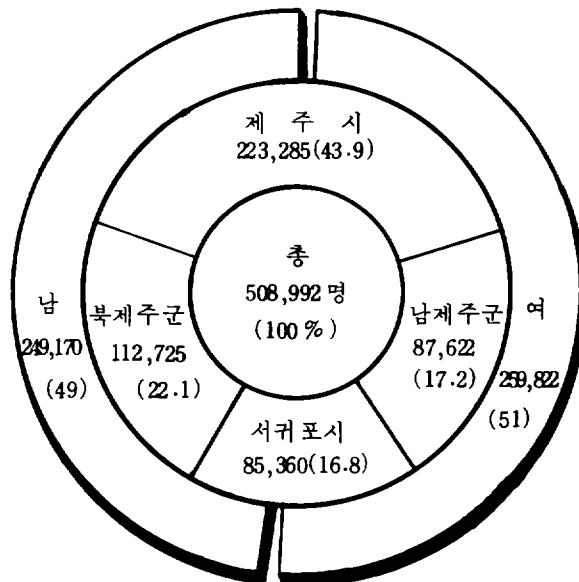
産業構造란 一國의 生産力의 構造를 産業別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C. Clark는 産業을 3 個部門으로 分類하여 第1次産業에는 農業, 水産業, 牧畜業, 林業 등이 포함되고 第2次産業에는 製造業, 鑛業 등이 포함되며 第3次産業에는 建設業, 交通通信業, 行政商業 金融, 기타 서어비스業 등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한 國家나 地域의 經濟的 特性은 그 地域의 産業構造를 分析 考察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는 것이며 産業構造의 變動趨移에 따라 한 國家나 地域의 經濟發展程度의 指標로 간주되고 있다.

濟州道の 産業構造는 四面環海의 地政學的인 위치와 自然的 條件에 의하여 육지부와는 다른 特徵을 갖고 있으며 아직도 農耕文化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現實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1) 人口와 就業構造

濟州道の 人口는 1988年末 現在 508,992名으로서 男子가 249,170名, 女子가 259,822名이며 이를 행정구역別로 나누어 보면 濟州市가 223,285名으로서 約 44%, 西歸浦市가 85,360名으로서 約 17%, 북제주군이 112,725名으로서 約 22%, 남제주군이 87,622名으로서 約 17%를 나타내고 있다. (表6 參照)

〈 表 6 〉 濟州道の 人口分布



資料 : 濟州道統計年報 1989.

濟州道の 人口動態를 살펴보면 1960年度 以前까지는 濟州道の 人口는 減少내지 現狀維持하는 變動을 보이다가 濟州開發이 시작된 1960年代初부터 1970年代末까지 급격한 增加勢를 보여 年 2~4%의 增加率을 나타냄으로써 外部人口의 道内流入이 濟州道の 地域開發과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가 있겠다. 즉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 濟州道地域開發이 감골조성사업 중심으로 進行됨으로써 勞動力의 수요가 급증하고 濟州道觀光開發計劃이 1973年度부터 추진되어 觀光개발붐에 의한 고용확대에 의해 人口流入이 두드러져 1970年代末까지 急激한 人口增加現象을 보이고 있으나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경기침체 및 濟州開發의 붐이 식어 人口의 급격한 증가는 둔화되고 全國增加水準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濟州道の 人口는 經濟狀況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며 이는 또한 開發에 따른 勞動力의 確保는 可能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다. (表7 參照)

〈表 7〉 濟州道の 人口動態

年度別	全 國		濟 州 道		備 考
	人 口	增加率(%)	人 口	增加率(%)	
1960	25,012,000	—	381,663	—	
1961	25,766,000	3.01	281,518	△ 0.05	
1962	26,513,000	2.90	293,101	4.11	
1963	27,262,000	2.82	307,519	4.92	
1964	27,984,000	2.65	318,358	3.52	
1965	28,705,000	2.57	326,405	2.53	
1966	29,436,000	2.55	337,052	3.26	
1967	30,131,000	2.36	346,816	2.90	
1968	30,838,000	2.35	258,282	3.31	
1969	35,544,000	2.29	370,105	3.30	
1970	32,241,000	2.21	365,522	△ 1.24	
1971	32,883,000	1.99	373,198	2.10	
1972	33,505,000	1.89	380,926	2.07	
1973	34,103,000	1.78	390,450	2.50	
1974	34,692,000	1.73	408,246	4.56	
1975	35,281,000	1.70	411,732	0.85	
1976	35,849,000	1.61	420,830	2.21	
1977	36,412,000	1.57	431,897	2.63	

(表7 계속)

年度別	全 國		濟 州 道		備 考
	人 口	增加率(%)	人 口	增加率(%)	
1978	36,969,000	1.53	443,708	2.73	
1979	37,534,000	1.53	456,988	2.99	
1980	38,124,000	1.57	462,755	1.26	
1981	38,723,000	1.56	467,876	1.11	
1982	39,326,000	1.49	473,967	1.30	
1983	39,910,000	1.24	477,861	0.82	
1984	40,406,000	0.99	482,031	0.87	
1985	40,806,000	0.93	488,576	1.36	
1986	41,184,000	0.95	495,968	1.51	
1987	41,575,000	0.96	502,534	1.32	
1988	41,975,000	0.97	508,992	1.29	

資料： 濟州道統計年報 1989.

또한 濟州道の 人口變動의 內容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0年度까지는 人口의 社會的 變動이 극심하였고 1980年代 중반以後 비교적 안정적 변동치를 보여주고 있다.

(表8과 表9 參照)

<表8> 濟州道 人口의 社會的 增加

구분 년도	인 구	전 입		전 출		社會的 增加	
		전입수(人)	率(%)	전출수(人)	率(%)	人 口	率(%)
1970	365,522	14,550	3.98	17,807	4.87	△ 3,257	△ 0.89
1976	420,830	36,273	8.62	43,315	10.29	△ 7,042	△ 1.67
1980	462,755	56,168	12.14	60,219	13.01	△ 4,051	△ 0.88
1985	488,576	17,257	3.53	20,343	4.16	△ 3,086	△ 0.63
1986	495,968	17,172	3.46	20,877	4.21	△ 3,705	△ 0.75
1987	502,534	18,484	3.68	21,207	4.22	△ 2,723	△ 0.54
1988	508,992	18,771	3.69	20,798	4.09	△ 2,027	△ 0.04

資料： 濟州道統計年報에 의해 作成

〈表 9〉 濟州道 人口의 自然增加

구분 년도	인 구	출 생		사 망		자 연 증 가	
		출생수(人)	率(%)	사망수(人)	率(%)	人 口(人)	率(%)
1970	3 65,522	7,737	2.12	3,076	0.84	4,661	1.28
1977	431,897	10,018	2.32	3,179	0.74	6,839	1.58
1980	462,755	13,355	2.89	3,984	0.86	9,371	2.03
1985	488,576	7,741	1.58	3,156	0.65	4,585	0.94
1986	495,968	7,921	1.60	3,130	0.63	4,791	0.97
1987	502,534	7,686	1.53	3,486	0.69	4,200	0.84
1988	508,992	8,069	1.59	3,330	0.65	4,739	0.93

資料： 濟州道統計年報에 의해 作成

한편 濟州道の 就業構造를 보면 〈表 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86年度 現在 濟州道の 總人口 495,968 名中 14 歲 以上 人口는 347,453 名이며 經濟活動 人口는 202,480 으로 經濟活動 參加率이 58.3 %를 나타내고 있다. 經濟活動 人口中 98.3 %에 해당하는 199,143 名이 실제 취업하고 있는 바 이를 産業別로 分析해 보면 第 1 次 産業에 116,002 名으로 58.2 %, 第 2 次 産業에 6,139 名으로 3.1 %, 第 3 次 産業에 77,002 名으로 38.2 %가 就業하고 있어, 濟州道民의 대부분이 第 1 次 産業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第 1 次 産業의 性格上 이들 중에는 상당부분의 계절적 僞裝失業者들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濟州道の 就業構造는 매우 不安定한 特性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지난 70 年代初부터 80 年代 中半까지 就業構造의 變化추이를 分析해 보면 第 1 次 産業의 就業比重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第 3 次 産業의 就業比重이 점증하고 있는바, 70 年代 이후 그 동안 濟州地域經濟의 成長이 觀光産業을 위주로 한 第 3 次 産業에 의해 主導되어 왔음에 비추어 볼 때 濟州道 就業構造는 濟州道の 産業構造 變化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表 10〉 濟州道 經濟活動人口 및 就業構造

區分		年度				
		1971	1975	1980	1985	1986
總 人 口		373,198	411,732	462,755	488,576	395,968
14歲以上人口		216,862	250,962	300,600	333,484	347,453
經濟活動人口		161,070	184,247	188,415	193,791	202,480
經濟活動參加率		74.3 %	73.4 %	62.7 %	58.1 %	58.3 %
就 業 人 口	就 業 者	159,430	183,925	188,028	190,214	199,143
	第 1 次 産 業 (%)	129,855 (81.4)	149,471 (81.3)	128,952 (68.6)	114,392 (60.1)	116,002 (58.2)
	第 2 次 産 業 (%)	4,715 (3.0)	5,208 (2.8)	9,999 (5.3)	6,491 (3.4)	6,139 (3.1)
	第 3 次 産 業 (%)	24,860 (15.6)	29,246 (15.9)	49,077 (26.1)	69,331 (36.5)	77,002 (38.2)
就 業 率		98.9 %	99.8 %	99.8 %	98.2 %	98.3 %
失 業 率		1.1 %	0.2 %	0.2 %	1.8 %	1.7 %

資料： 濟州商工會議所刊, 濟州經濟現況

알 수 있겠다. 따라서 濟州道 就業構造의 質的 改善 및 就業機會의 擴大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産業構造의 改善을 위한 政策的 배려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2) 産業構造와 特性

濟州道の 産業構造를 住民總生産額 (GRP)을 기준으로 보면, 〈表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年度 第1次産業이 차지하는 비중이 61.5%, 第2次産業이 5.4%, 第3次産業이 33.1%를 차지하고 있어 60年代 初까지만 하여도 濟州道の 産業構造는 第1次 産業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다가 70年代에 들어서면서 觀光産業을 중심으로 한 産業開發政策에 의해 第3次 産業의 비중이 급격하게 增加하여 1985年度 現在 濟州道の 産業構造는 第1次 産業이 42%, 第2次 産業이 3.4%, 第3次 産業이 54.6%를 차지하고 있어 同年度 全國의 産業構造(第1次 産業: 14%, 第2次 産業: 30.7%, 第3次 産業: 55.3%)에 비교해 볼 때, 第2次 産業의 비중이 극히 미미한 기형적 産業

構造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우리나라가 第2次産業 指向的인 工業化 政策에 힘입어 高度의 成長을 누릴 수 있었다는 點에 비추어 볼 때 特異한 現象이라 하겠다.

濟州道の 이러한 기형적 産業構造의 특징은, 2次産業의 경우 濟州道가 利用可能한 地下資源이 거의 없고 工業用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原料의 구매와 製品의 販賣에 있어서도 全國의 다른 地域에 비하여 추가적 費用을 부담해야 하는 등 製造業이 成立하기 위한 立地的 制限條件이 불리, 製造業에 대한 投資가 저조하였던 데 反하여 1次産業과 3次産業의 경우 풍부한 天惠의 自然資源과 氣候的 好條件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特히 觀光産業의 경우 濟州道가 갖는 觀光資源의 比較優位를 최대한으로 活用한다는 立場에서 觀光開發에 집중적인 投資가 行해진데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濟州地 域經濟의 成長은 先導産業으로서 第1次 産業과 觀光 및 서비스를 주로 한 第3次 産業에 의해 主導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第1次産業 가운데 農業部門의 경우, 60年代 初까지만 해도 田作을 중심으로 하는 食糧作物 위주의 自給的 農業이 대부분이었으나 그 이후부터 所得이 높은 特用作物과 감귤을 中心으로 하는 利潤 추구의 商業的 農業으로 전환하여 왔다. 다시 말해서 濟州道 農業은 自然條件이 주는 利點을 최대한으로 活用하면서 위치적으로 불리한 점을 상쇄해 나가고 濟州道만이 生産可能한 特用作物을 生産, 特定期間에 있어서 獨占의 供給을 可能케 함으로써 초과利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중 收益性이 높은 經濟作物인 감귤, 참깨, 맥류, 유채, 고구마는 換全作物로 各광을 받게 되어 本道の 主要한 經濟作物으로서 그들의 生産은 第1次産業의 總生産額을 提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70年代 後半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先導作物이었던 감귤, 유채, 고구마 등의 販路에 커다란 障陰가 나타났다. 즉, 감귤은 量的 擴大와 이에 따른 諸般與件의 미흡으로 인하여 價格은 계속 하락세를 보였고 特用作物도 農産物 輸入自由化 政策에 의해 값싼 外國産 農産物이 輸入됨으로 인하여 점차 斜陽化되었다. 여기에 濟州道 綜合開發計劃과 觀光産業振興施策으로 農業部門은 뒷전으로 쳐지게 되었고 따라서 産業構造面에서도 70年代 後半에 들어서면서 第1次産業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反面, 第3次産業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11〉 參照]

이와 같은 추세는 80年代에 이어 90年代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展望되는 바, 産業構造의 不均衡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3次産業 및 1次産

業 界의 産業構造의 不均衡下에서는, 産業間 所得隔差가 심화됨은 물론이고 濟州地域經濟의 成長에 限界가 있어 濟州地域內의 經濟活動人口를 흡수하는 데에도 많은 問題를 露呈시키게 된다.

〈表 11〉 産業別 住民總生産 變化推移

單位：100 만원 (經常價格)

産業別 年度別	全 產 業		農 林 漁 業		鑛 工 業		社 會 間 接 資 本 及 기타서어비스業	
	金 額	%	金 額	%	金 額	%	金 額	%
1960	2,494	100.00	1,538	61.5	134	5.4	826	33.1
1966	10,704	100.00	6,554	61.2	903	8.4	3,247	30.4
1970	24,003	100.00	11,406	47.5	2,033	8.5	10,564	44.0
1975	110,190	100.00	64,742	58.7	5,457	5.0	39,991	36.3
1976	119,759	100.00	60,041	50.1	3,029	2.5	56,689	47.4
1977	165,335	100.00	81,220	49.1	6,021	3.7	78,094	47.2
1978	228,453	100.00	88,671	38.8	7,816	3.4	131,966	57.8
1979	273,973	100.00	105,941	38.7	12,663	4.6	155,369	56.7
1980	336,613	100.00	130,667	38.8	16,720	5.0	189,226	56.2
1981	464,573	100.00	159,576	34.3	20,807	4.5	284,190	61.2
1982	470,003	100.00	215,400	45.8	20,914	4.5	233,689	49.7
1983	516,826	100.00	196,266	38.0	22,748	4.4	297,812	57.6
1984	603,411	100.00	271,499	45.0	21,200	3.5	310,712	51.5
1985	706,001	100.00	345,268	48.9	28,090	4.0	332,643	47.1

資料： 濟州道, 濟州道誌 1982.

濟州商工會議所, 濟州經濟現況, 1988.

三. 濟州道 輸出産業의 實態

1. 濟州道の 輸出에 대한 概觀

1960年代初 經濟開發計劃이 추진된 후 우리나라 經濟는, 工業化추진에 따른 급속한 輸出增大에 의하여 高度成長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濟州道の 경우, (表-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濟州道の 輸出은 全國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濟州地域經濟의 成長主導는 全國의 그것과는 다른 方向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시사하여 주는 것이며 또한 2次産業의 낙후라는 濟州道の 기형적 産業構造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88年度 濟州道 輸出實積은 40,097千달러로 全國의 총수출액 60,696백만달러의 0.066%에 불과하며, 또한 濟州道 住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7년도에 2.7%에 불과하여 濟州道輸出은 全國은 물론 濟州地域의 成長産業으로서도 극히 보잘 것없는 실정이다.

〈表 12〉 제주도의 輸出實積 (全國對比)

구분 연도	全 國 輸 出		濟 州 輸 出		점 유 율 (B/A, %)
	金額 (백만\$) (A)	신장율 (%) (전년비)	金額 (천\$) (B)	신장율 (%) (전년비)	
1974	4,712	15.1	7,551	2.7	0.160
1976	8,114	49.5	10,939	20.8	0.134
1978	12,711	26.5	13,903	6.72	0.109
1980	17,505	16.3	18,764	21.6	0.109
1982	21,853	2.8	18,962	0.2	0.087
1984	29,245	19.6	23,755	11.2	0.082
1986	34,715	14.6	28,951	16.4	0.084
1988	60,696	28.3	40,097	12.4	0.066

〈資料〉 濟州道 統計年報

제주도의 輸出은 1952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이루어져 農産物인 除蟲菊 75,000kg을 日本에 輸出하였고 그 代金으로 기계류를 導入하였으며, 鮮魚도 11,250kg을 日本으로 수출하였다. 그 後, 輸出品目的 다양화와 함께 輸出시장도 對日本 일본도에서 벗어나 輸出市場

多邊化를 시도하여 왔으나 第2次産業의 비중이 극히 낮은 産業構造上의 特性을 갖고 있어서 輸出構造 역시 水産物 中心의 後進的 産業構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表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道の 輸出은 그 대부분을 水産物에 의존하고 있는 바, 1980年, 1988年의 輸出額이 各各 15,268千달러, 20,028千달러로, 1980年, 1988年度의 濟州道 總輸出額 18,764千달러, 40,097千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各各 81.3%,

〈表 13〉 部門別 輸出實積의 추이

(단위: 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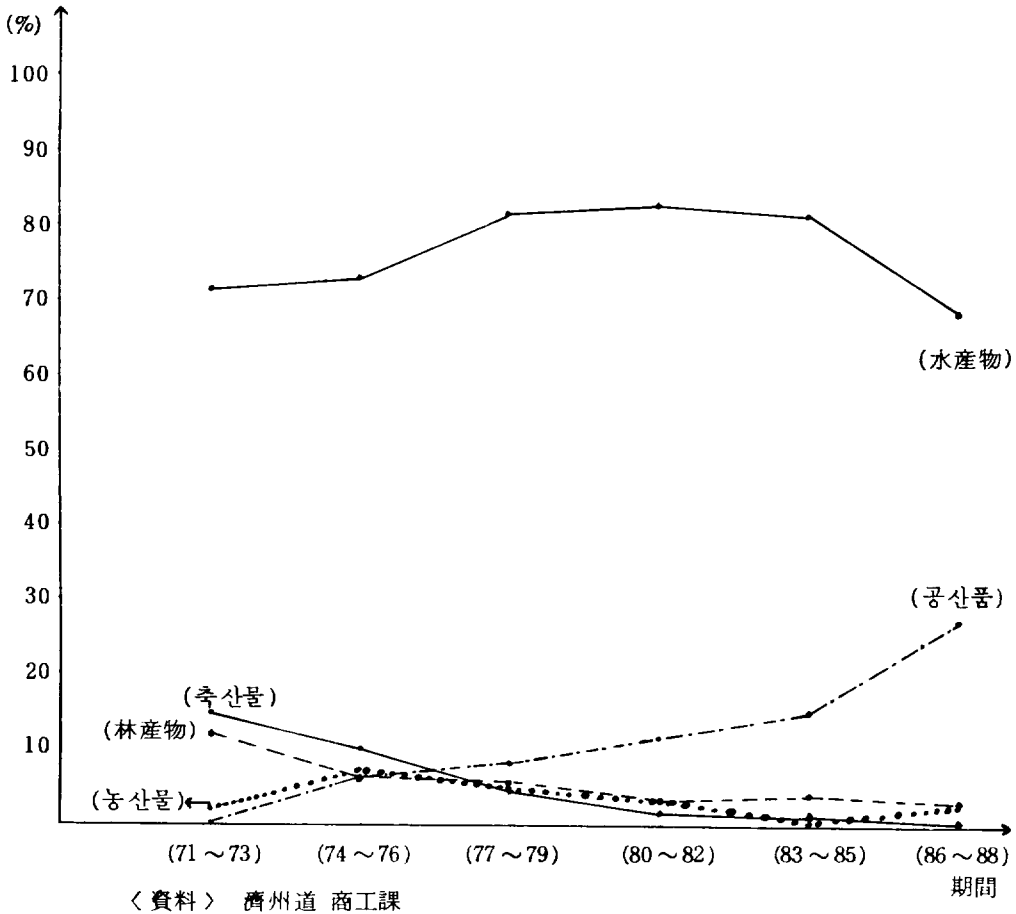
年度	輸出實積 (%)	部 門 別 實 積				
		水産物 (%)	農産物 (%)	畜産物 (%)	林産物 (%)	工産品 (%)
1972	5,097 (100)	3,274 (64.2)	31 (0.6)	1,307 (25.6)	478 (9.3)	5 (0.1)
1974	7,755 (100)	6,082 (78.4)	297 (3.8)	761 (9.8)	271 (3.5)	341 (4.4)
1976	10,939 (100)	7,874 (72.0)	916 (8.4)	973 (8.9)	548 (5.0)	628 (5.7)
1978	13,903 (100)	11,411 (82.1)	876 (6.3)	-	606 (4.3)	1,010 (7.3)
1980	18,764 (100)	15,268 (81.3)	1,158 (6.2)	161 (0.9)	464 (2.5)	1,713 (9.1)
1982	18,964 (100)	15,979 (84.2)	28 (0.1)	63 (0.3)	553 (2.9)	2,348 (12.4)
1984	23,755 (100)	19,063 (80.2)	67 (0.2)	-	763 (3.2)	3,862 (16.2)
1986	28,951 (100)	21,435 (74.0)	558 (1.9)	22 (0.06)	728 (2.0)	9,557 (26.8)
1988	40,097 (100)	26,028 (65.0)	579 (1.4)	-	877 (2.2)	12,613 (31.4)

〈資料〉 濟州道 商工課

6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水産物의 輸出이 濟州道 전체의 輸出에서 차지하는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理由는, 濟州道가 四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水産資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濟州道가 天惠의 자연환경을 갖춘 國際觀光地로서의 환경보존이 無公害 立地的 條件을 유지시켰으며 그 結果, 濟州道 近海에서 잡히는 水産物의 높은 신선도는 公害産業이 심한 外國의 消費者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濟州道の 輸出추이를 構造的 側面에서 보면, (圖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이는 現象은 濟州道 전체의 輸出에서 水産物이 차지하는 비중은 80年代初를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反面에, 工産品의 比重은 계속 增加하고 있다는 점이다. 濟州道の 産業構造面에 있어서 第2次産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음에도 工産品輸

[圖 4] 濟州道 輸出構造의 추이



出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觀光産業이 濟州道の 成長主導産業으로서 成長해 나감에 따라 外國觀光客들에 의한 觀光土産品 등의 工産品에 대한 需要가 急増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工産品の 경우 外國觀光客을 Target Market (표적市場)으로 하는 치밀한 Marketing 戰略이 수행되어진다면, 工産品の 輸出은 觀光産業의 成長에 桴應하여 비약적인 發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 豫想되어진다.

한편, 農産物, 畜産物, 林産物 등의 여타부분의 輸出 비중은 70年代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규모 역시 극히 미미한 水準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理由는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理由는 무엇보다도 이들 部門의 輸出品目들이 輸入相對國에 비해 특별한 상대적 優位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部門에 대한 획기적인 政策的 배려가 없는 한 輸出伸張에 대한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判斷된다.

2. 品目別 輸出現況

濟州道에서 輸出되고 있는 품목의 數는 '86년 10種, '87년 13種, '88년 32種으로 늘어나 새로운 輸出商品에 대한 발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출주종품目は 아직도 水産物과 工産品部門의 몇 개의 品目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以下에서는 제주도에서 輸出되고 있는 品目들을 部門別로 나누어 年度別 수출實積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1) 水産物部門

濟州道에서 輸出되는 水産物은 (表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이 活魚와 鮮魚상태로 輸出되고 있다. 水産物을 品目別로 보면, 1. 소라, 전복 및 一部 魚類가 活魚狀態로, 2. 삼치, 방어 및 돔 種類는 鮮魚狀態로 輸出되고, 3. 海藻類는 1975년부터 全量

〈表 14〉 水産物の 品目別 輸出實積의 추이

(단위: 千\$)

年度 品目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活魚	3,601	5,294	5,657	7,328	7,124	7,966	11,942	13,869	15,335	14,221	10,013	12,437	-
鮮魚	1,545	1,007	1,179	1,352	1,502	1,116	938	729	1,212	1,884	5,155	3,900	12,247
海藻類	2,416	3,028	3,608	3,815	5,451	5,159	2,693	2,507	2,058	3,496	5,854	6,712	8,098
冷凍品	312	354	602	509	428	909	226	727	458	356	413	1,183	571
알긴산	-	-	325	172	708	749	173	-	-	-	-	-	-
기타	-	-	40	99	55	-	-	-	-	-	-	-	5,112
計	7,874	9,683	11,411	13,275	15,268	15,899	15,972	17,832	19,063	19,957	21,435	24,232	26,028

〈資料〉 濟州道 商工課

加工하여 젓갯, 海藻粉, 알긴산 등으로, 4. 오분자기, 봉장어를 비롯한 一部 魚種은 冷凍品으로 輸出되고 있다. 1987년의 品目別 水産物 輸出額은 活魚가 12,437千달러, 鮮魚가 3,900千달러, 海藻類가 6,712千달러, 冷凍品이 1,183千달러를 기록하여 水産物 전체의 輸出額 24,232千달러에서 活魚, 鮮魚, 海藻類, 冷凍品이 各各 51.3%, 16.1%, 27.7%, 4.8%를 차지하고 있어 活魚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알긴산의 경우는 가공업체의 廢業으로 '83년부터는 수출이 중단되었다.

한편, 濟州道の 輸出은 그 대부분을 水産物에 의존하고 있는 바, 濟州道の 水産物은 外貨획득원으로서는 물론이고 濟州道民의 所得増大源으로서 重要な 意味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部門에 대한 지속적인 輸出増大를 위해서는 長期的이고 체계적인 輸出計劃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水産物은 一次 商品으로서 갖는 그 자체의 特性, 예컨대 생산량 増大의 한계와 가격의 불안정 등인데, 특히 國際市場에서의 價格不安定 등은 交易條件의 惡化와 그에 따른 實質所得의 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어획량의 불안정에 따른 供給의 不均衡은 價格의 폭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輸出物量의 安定的 確保가 이루어져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水産物輸出에서 특히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活魚에 대해서는 養殖場을 設置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도 輸入相對國에 대한 市場調査를 통하여 輸入業者의 要求事項, 수요지에서의 경쟁狀況, 당해品目の 用途와 將來의 展望, 최적의 輸出經路의 모색 등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長期的인 輸出戰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 農産物部門

農産物部門의 輸出品目を 보면 (表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호박, 양배추, 무우말랭이, 당근, 생마늘 등이 主宗品目を 이루고 있으나 그 額數가 너무 적어, 濟州道 輸出總에서

〈表 15〉 農産物の 品目別 輸出實積의 추이

(단위:千\$)

年度 品目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밀감과립쥬스															931	264
양 호 박								11	7	28	11	10		19	27	57
양 배 추				268	42	18		910	223			45	10	440	5	
무우말랭이	44		17	213	121									18	8	
당 근			16	1	2		4							18	5	149
당 면														9	32	4
생 마 늘	16	4.5												0.5	76	24
락 교			4			10	30	56								
저 립 무 우	10	178	181	273	59											
양 파		19			17				75		71					
기 타	135	95.5	297	161	334	848	250	181	218		18	12	27	53.5	27	81
計	205	297	515	916	575	876	284	1,158	523	28	100	67	37	558	1,111	579

〈資料〉 濟州道 商工課

차지하는 비중도 '80年代에 이르러서는 1%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게다가 매년 지속적으로 輸出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輸出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무우말랭이의 경우 '70년대 중반에는 몇 년간 계속 수출되다가 중단된 후 '86년, '87년에 와서 다시 수출이 이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輸出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農産物이 가뭄, 한파 등과 같이 自然的 氣候條件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國內의 需給 狀態 및 輸入相對國의 기후變動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一時的으로 必要時에 輸出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가지 特記할 사항은 '87, '88년에 이르러서 새로운 輸出品目으로 등장한 밀감과립쥬스의 경우 여타의 農産物品目에 비해 輸出 額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감귤은 濟州道 農家の 主所得源으로서 住民總 生産 (GRP)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히 크다. 다만 감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問題는 감귤 價格의 불안정이다. 따라서 감귤價格의 安定化方案의 하나로서 감귤加工處理施設의 擴充을 통한 가공수요의 확대가 현재 당면한 主要課題라고 볼 때 감귤加工處理施設의 확충과 함께 품질의 高度化를 기할 수 있다면 밀감과립쥬스의 輸出은 어느 정도 伸張되리라 展望된다.

3) 畜産物部門

濟州道 畜産物部門의 輸出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왔는데 (表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84년, '86년, '88년의 최근 몇년 동안은 단 한건의 輸出도 없었다. 이와 같이 畜産物

< 表 16 > 축산물의 品目別 輸出實積의 추이

(단위: 千\$)

年度 品目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조랑말	28	53					161	70	63	13				22	
냉돈육	733	967	973	1,100								12			
꿀															
計	761	1,020		1,100			161	70	63	13		12		22	

< 資料 > 濟州道 商工課

部門에서의 輸出이 부진한 原因은 70年代 중반까지 單一品目으로서 적지않은 수출비중을 차지했던 冷凍豚肉이 內需增加와 輸入相對國에서의 수요격감으로 輸出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조랑말의 경우, 輸入商側으로부터 조랑말에 대한 單價下向調整 要請으로 인해 輸出이 부진하였던데 그 原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林産物 部門

林産物部門의 輸出品目은, (表 1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76年, 77年의 兩年을 제외하고는 표고버섯 한 가지로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고버섯은 현재 단일품목으로

〈表 17〉 林産物の 품목별 輸出實積의 추이

(단위:千\$)

年度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乾 표 고	1,127	272	689	533	805	606	299	464	449	553	538	763	762	700	723	877
생 표 고														18	5	
염장고사리				15	72											
計	1,127	272	689	548	877	606	299	464	449	553	538	763	762	718	728	877

〈資料〉 濟州道 商工部

제주도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적으로 輸出이 이루어져 왔음에 비추어 볼 때, 제주도 표고버섯은 그 品質面에서 어느 정도 對外的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反證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제주도의 표고버섯은 앞으로도 계속 제주도의 특산물로서 輸出진흥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어진다.

70年代 中半이후 道内の 표고의 生産量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濟州道가 國立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자연보존법률안에 저촉, 표고生産을 위한 資本확보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輸入開放과 함께 中國産 低價品の 덩핑공세 등으로 수출이 다소 위축되기도 했으나 濟州道産 표고의 경우 향기가 짙어 다른 地方産과 低品質의 中國産과 비교해 볼 때 충분한 市場性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高商品價値를 내세운 生産 및 販賣戰略과 함께 資本확보를 위한 關係當국의 長期造林이 뒷받침될 경우 제주도의 표고산업은 본도의 주요 輸出品으로의 위치는 확고하리라 전망된다.

5) 工産品 部門

工産品の 輸出品目を 보면, 우선 70年代중반까지만 하더라도 貝殼, 쓰르기 등이 輸出되었으나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그 후 輸出이 중단되었고 70년대 중반에 수출이 시작된 觀光土産品과 함께 80年代 中半에 이르러서는 수전직, 양식진주, 회석소주 등이 새로운 輸出品目으로 등장하였다. 特히 觀光土産品은 70년대 中半부터 輸出이 시작된 후 계속

〈表 18〉 工産品の 品目別 輸出實積의 추이

(단위: 千\$)

年度 品目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관광土産品			343	164	293	427	434	277	608	697	592	423	905	2,359	3,437	3,542
면세품 (외래품)				51	70	286	755	1,228	1,548	1,588	2,112	3,415	3,189	3,813	6,021	8,849
양식진주															23	31
수견직						286	392	208	174	63	170	24			9	120
加工石														24	21	22
회석소주														34	27	46
貝 殼	16.7	4.8	41	7	23	11	5									
쓰르기	17.2	247	163	377	388											
기타	3.5	88.8	9	29	18	-	142	100	-	-	-	-	14	10	19	3
計	37.4	341	556	628	792	1,010	1,586	1,713	2,330	2,348	2,874	3,862	4,108	6,240	9,557	12,613

〈資料〉 濟州道 商工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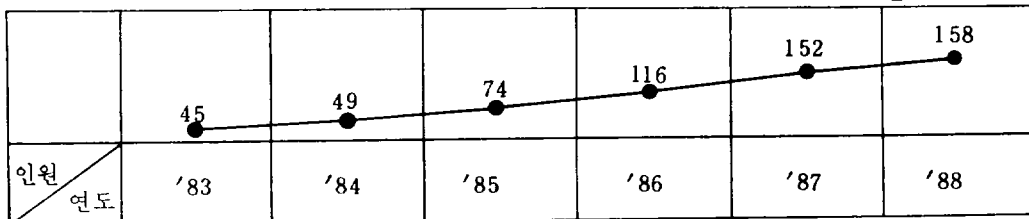
높은 輸出伸張率을 기록하면서 증가하여 왔으며 현재 工産品部門의 輸出主宗品目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있다.

輸出되고 觀光工産品으로서는 주로 자개단추, 진주패 조각, 카우스반제품, 수공예품 등인데 현재 이들 품목들은 地方特化 産業으로 지정받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가 國際觀光地로 인정받고 있어 외국인 觀光客들의 수가 (圖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이 部門에 있어서 外國人관광객들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土産品에 대한 新規品目的 開發, 그리고 品質 및 디자인의 高度化를 기할 수 있다면 이 部門의 輸出은 濟州道 觀光産業의 成長에 裨益하여 비약적인 發展이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濟州道 工産品輸出部門에서 나타나는 問題點은, 外來品輸出이 제주도 工産品

〈圖 5〉 연도별 외국인觀光客의 추이

(단위: 千명)



〈資料〉 濟州道, 제주통계연보 (1989)

전체의 輸出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表18) 參照) 이러한 外來品들은 濟州道에서 生産되는 것이 아니라 外國産輸入品을 外國人관광객들에게 販賣하는 것으로 濟州道産 工産品의 輸出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濟州道 工産品輸出의 취약성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濟州道 工産品輸出의 질적構造를 높이고 동시에 輸出擴大를 통한 道内の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濟州道産 觀光土産品 등의 地方特化産業으로 지정된 品目들의 生産基盤의 확충을 위한 여건조성과 함께 輸出擴大를 위한 政策的 배려가 이루어져야겠다.

3. 業體別 輸出現況

'89年度 현재 濟州道内に 貿易業이 許可된 業體는 모두 25個業體인데 이중에서 輸出入行爲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甲類貿易業體가 6個業體이며, 輸出入行爲의 범위가 制限된 乙類貿易業體가 18개 業體이다.

以下에서는 部門別로 나누어 業體들의 輸出現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水産物 輸出現況

'88년 現在 濟州道에서 水産物에 대한 輸出實積을 올린 業體는 (表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個業體이며 이중에서 5個業體는 水産業協同組合이며 그 나머지는 一般企業體이다. 그리고 88年度 濟州道 水産物 總輸出額 26,028千달러에서 5개 水協이 차지하는

〈表19〉 業體別 水産物 輸出現況 (1988년도)

(단위:千\$)

業 體 名	輸 出 品 目	輸 出 實 積	輸 出 對 象 國
제 주 시 수 협	貝類	1,960	일 본
서 귀 포 수 협	貝類, 海藻類	1,919.60	"
한 립 수 협	貝類	614	"
성 산 포 수 협	貝類	257.60	"
추 자 도 수 협	貝類, 鮮魚	1,792	"
榭 現 代 化 晟	알긴산소다	2,926.90	"
文 一 産 業 社	海藻類	712.80	"
東 一 商 社	海藻類	512.30	"
泰 林 商 社	海藻類	1,274.50	"
榭 韓 國 通 産	活鮮魚(文魚)	42.10	"

업 체 명	輸出品目	輸出實積	輸出대상국
協信食品工業社	海藻類	1,571.10	일 본
東信産業協	海藻類	778.20	"
청용수産	活鮮魚, 冷凍品	108.90	"
濟州商易協	貝類, 活鮮魚	2,650.50	"
濟州貿易協	活鮮魚	357	"
進洋商社協	活鮮魚, 貝類, 냉동품	7,009.50	"
海東物産協	活鮮魚, 貝類	122	"
大昌物産協	活鮮魚, 冷凍品(육동)	20.50	"
光州商會	冷凍品	78.30	"
協一興産業	冷凍品	183.30	"
成哲交易協	活鮮魚, 海藻類, 冷凍品	154.10	"
골드수産	活鮮魚, 冷凍品	375.70	"
新韓國物産	活鮮魚	125	"
玉臣貿易産業社	冷凍品	45.20	"
韓一物産	活鮮魚	436.90	"

〈資料〉 濟州道 商工課

輸出額은 6,542千달러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水産物에 대한 상당부분이 5個 水協을 통해서 輸出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2年, 84年, 86年에 5個 水協이 水産物 전체의 輸出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0%, 80%, 40%인 점을 감안할 때 5개 水協을 통한 輸出비중은 최근에 들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一般企業體를 통한 輸出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80年, 82年, 84年, 86年, 88生에 水産物에 대한 輸出實積을 올린 一般기업체가 3개, 6개, 8개, 18개, 19개로 水産物 輸出企業體가 계속 확대되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一般企業體로서 '88년도 현재 輸出實積이 100萬\$ 이상인 업체는 現代化農, 泰林商社, 協信食品工業社, 濟州商易, 進洋商社들로 5개業體뿐이며 그 나머지는 100萬\$ 이하인 수출업체들로서 극히 영세한 業體들이다. 게다가 이들 기업체 중에서 최근 3年間 계속적으로 輸出實積을 올린 企業體는 불과 10개에 불과하여 輸出業體로서의 영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 農産物 輸出現況

'88년도 현재 農産物에 대하여 輸出實積을 올린 業體는 10개 業體이며 이 중에서 輸出實積이 10萬달러 이상인 業體는 불과 2개업체 뿐이고 그외는 모두 10萬달러 미만인 업체들이며 심지어 1萬달러도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表20 參照> 게다가 최근 3년동안 계속 수출실적을 올린 業體는 三洲物産商社와 興雲기업 2개업체 뿐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輸入國인 日本의 輸出商으로부터 必要時 간헐적으로 小額의 輸出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表 20> 업체별 農産物 輸出現況 (1988年度)

(단위:千\$)

업체명	輸出品目	輸出實積	輸出대상국
大韓綜合食品(株) 濟州工場	밀감과립쥬스	270	中 東
成哲交易(株)	양배추, 양채, 乾당근	8,50	日 本
三洲物産商社	양호박, 콩, 화훼	66	"
명화産業	양배추		
東信産業(株)	乾실과, 乾마늘, 乾당근	14	"
한경單位農協	메밀		"
玉臣貿易(株)	양배추, 마늘(중)	6	"
(株) 大元	냉면, 당면, 마늘	31	"
京東農産	마늘(중)	9	"
(株) 興雲	乾당근, 양배추, 대파, 무우청	159	"

<資料> 濟州道 商工課

3) 畜産物 輸出現況

축산물의 경우, 최근 몇년동안 전혀 輸出이 안되어 오다가 87년에 조랑말 24匹이 남영牧場을 통하여 輸出이 이루어진 정도이다 <表 21 參照>.

<表 21> 업체별 축산물 輸出現況 (1987年度) (단위: 千\$)

업체명	輸出品目	輸出實積	輸出대상국
남영牧場	조랑말	21,875	

<資料> 濟州道 商工課

4) 林産物 輸出現況

林産物 部門의 輸出品目인 표고는 현재 全量이 제주도 표고業者協同會에 의해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헐적으로 一部業體 (成哲交易, 우성産業社, 금양貿易 등)에 의해 輸出이 이루어지곤 했으나 현재는 輸出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다 (表 22 參照)

<表 22> 업체별 林産物 輸出現況 (1988年度) (단위: 千\$)

업체명	輸出品目	輸出實積	輸出대상국
제주도표고업자協同會	乾 표 고	877	대 만
成哲交易(株)	生 "	4.69 ('87년 실적)	일 본

<資料> 濟州道 商工課

5) 工産品 輸出現況

<表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年度에 工産品에 대하여 輸出實積을 올린 業體들은 모두 13개 業體이다. 이들 業體 중에서 韓進觀光濟州支店과 韓國觀光公社 濟州營業所 2個業體가 올린 輸出實積이 濟州道 工産品總輸出額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타의 業體들의 경우 업체당 평균 輸出額은 218千달러로 그 額數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게다가 濟州道 工産品輸出業體의 輸出主綜品目들의 대부분은 觀光土産品과 외래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品目들은 外國으로 직접 輸出되는 것이 아니라 道內에서 外國人 觀光客들에게 店頭販賣方式에 의하여 輸出되고 있으며 기타의 品目들 역시 國內의 다른 貿易會社를 통해서

〈表 23〉 업체별 工產品 輸出現況 (1988 年度)

(단위: 千\$)

업체명	輸出品目	輸出實積	輸出대상국
제주국제공항 販賣(株)	관광土産品	220	
韓國記念品 販賣(株)	"	726	
韓星物産	"	501	
(株)三億	"	567	
그랜드 Hotel 構内土産品	"	157	
(株)韓進觀光 제주支店	관광土産品 免稅品	5,002	
하이얏트 Hotel 構内 ToP SHop	관광土産品	14	
三州物産商社	구슬공예품	3	
韓國觀光公社 제주영업소	관광土産品 免稅品	4,248	
東洋絹織	手絹織	120	
釜山代理石	加工石	22	호주
(株)韓壹	稀釋소주	46	일본
趙基淳全眞眞珠	양식眞珠	31	"

〈資料〉 濟州道 商工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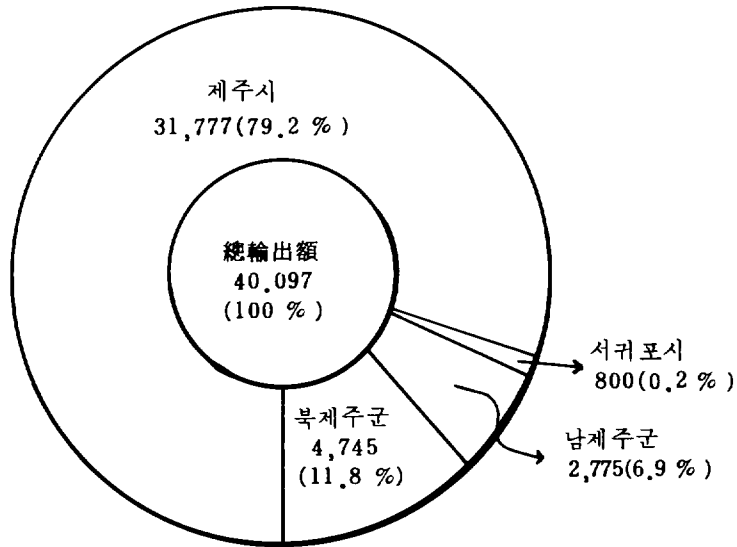
間接輸出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濟州道 工產品輸出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영세할 뿐만 아니라 輸出性格 그 자체도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4. 地域別 輸出現況

濟州道の 輸出實積을 地域別로 보면 濟州市가 31,777千달러, 북제주군이 4,745千달러, 남제주군이 2,775千달러, 서귀포시가 800千달러를 輸出하여 濟州道の 總輸出額에서 차지

〈圖 6〉 제주시 지역별 수출현황

(단위: 千\$, %)



資料: 濟州道 商工課 (1989年)

하는 비중이 각각 79.2%, 11.8%, 6.9%, 0.2%를 차지하고 있어 濟州道輸出의 대부분이 濟州市에서 輸出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圖 6〉參照]. 이를 部門別로 나누어 보면, 濟州市의 경우 水産物이 17,758千달러, 工産品이 12,522千달러를 輸出하여 濟州市 輸出 전체의 각각 55.8%, 39.4%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여타의 지역에서는 水産物 輸出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工産品의 경우 전체 輸出額의 99%가 濟州市에서 輸出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濟州道 輸出의 特性과 問題點

1) 1次産業전중의 輸出構造

濟州道の 輸出産業構造에 있어서 1989年度 濟州道는 전체輸出에서 1次産業이 약 60%를 차지하여 同年度 全國平均의 9.5%(부산 6.9%, 대구 1.6%, 경기 1.6%)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 濟州道の 輸出産業構造를 全國과 비교해 볼 때, 극히 1次産業전중의 輸出構造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제주도의 경우 1次産業 中에서도 水産物이 차지하는 比重이 1次産業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水産物 部門中, 몇 개의 品目에 輸

이 편중되어 있는 構造的 特性을 가지고 있다.

이는 政府가 1960年代 初 이후 工業化에 의한 輸出主導的 經濟開發政策을 추진하는 동안 濟州地域에서는 農魚民 所得增大에 역점을 둔 開發政策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며 여기에 濟州産 農水産物에 대한 일본으로 부터의 需要가 지속적으로 增加하여 온데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濟州道の 이러한 1次産業전중의 輸出構造下에서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내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1次産業은 그 속성상 기후條件 등 자연환경의 變化에 따라 수확 및 어획량의 기폭이 크며 또한 그에 따른 價格不安定을 가져 올 수 있어 결과적으로 輸出에 따른 濟州道民의 實質所得의 불안정을 노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1次産業은 그 성격상 고용면에서 상당부분의 계절적 위장실업자들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濟州道の 이러한 1次産業전중의 輸出構造下에서는, 輸出에 의한 道内の 고용창출 및 취업機會의 擴大라는 側面에서도 많은 問題點이 노출되고 있다.

2) 工産品 輸出의 脆弱性

周知하는 바와 같이 濟州道는, 濟州道가 처한 여러가지 現實的 制반여건들로 인하여 製造業이 아닌 1次産業과 觀光産業에 의하여 成長이 主導되도록 추진되어 왔다. 그 結果 濟州道内에서는 현재 重化學工業의 製品이 전혀 生産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輸出되고 있는 工産品の 生産工程도 手工業的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어 工産品の 輸出은 全國의 그것에 비하여 너무나 脆弱한 構造的 特征을 가지고 있다.

'80年代에 이르면서 濟州道の 成長主導産業인 觀光産業이 成長해 나감에 따라 外國 觀光客들에 의한 工産品 輸出實積이 크게 增加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工産品輸出에 대한 成長잠재력과 함께 그 發展이 기대되어진다. 그러나 현재 濟州道 工産品輸出에서 나타나는 問題點은 濟州道 工産品輸出의 대부분이 外國産, 또는 陸地로부터 반입된 工産品들을 外國 觀光客들에게 販賣하는 것으로 濟州道産 工産品の 輸出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事實은 그동안 濟州道の 工産品 輸出에 대한 量的 增大에도 불구하고 道内에서의 고용창출 및 住民所得의 增大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없었음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濟州道 工産品輸出의 脆弱한 構造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濟州道産 工産品輸出의 擴大와 함께 濟州道 住民의 所得增大과의 연계方案이 아쉬운 현실이다.

3) 輸出業體의 規模와 輸出品目的 零細性

'89年度 현재 濟州道内에서 貿易業이 허가된 業體는 甲類貿易業體가 6개, 乙類貿易業體가 18개로 모두 25個業體인데 이 중에서 '88年度 輸出實積이 100萬\$ 이상인 業體는 불

과 5 個業에 지나지 으며 輸出品目도 5 개 部門에서 10 여개 品目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輸出實績 역시 매년 지속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輸出業體로서의 규모나 영속성에 극히 심한 問題點을 보이고 있다.

輸出業體의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問題點으로서 는 자체적인 輸出마케팅能力이 결여 우수한 輸出專門人力 확보의 어려움, 資金調達上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는데, 濟州道 輸出業體의 경우도 그 규모가 극히 영세하여 예외없이 이러한 問題點들에 직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濟州道 輸出業體들은 자체적으로 輸出品目에 대한 시장환경, 고객, 輸出販路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조사를 하거나 해외광고 활동을 할 수 있는 能力을 결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問題는 다시 輸出專門人力 확보의 어려움과 자금調達上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濟州道 輸出業體들의 輸出專門人力의 확보에 있어서 <表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타의 地方輸出業體들에 비해 크게 열세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는데 濟州道 輸出業體의 경

<表 24> 貿易專門人力 確保

地域	항목	확보 상태			100(%)
		충분히 확보	확보 못함	전혀 확보 못함	
부 산		54.8	41.9	3.2	100(%)
인 천		50.0	46.2	3.8	"
광 주		37.5	62.5	-	"
대 전		63.2	31.6	5.3	"
충 남		90.0	10.0	-	"
경 북		39.3	45.1	15.6	"
제 주		25.0	50.0	25.0	"
전 체		44.1	48.4	7.5	"

<資料> : 大韓商工會議所

우 專門人力을 충분히 확보한 업체는 전체의 25%에 그치고 있어, Buyer 상담, 무역서식의 作成, 輸出入通關업무, 輸出入代金결제 등 輸出入業務를 처리할 무역전문인력의 부재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자체적인 輸出마케팅 能力의 결여, 輸出專門人力의 부재 등의 애로사항으로부터 파생

되는 問題點으로 濟州道 輸出業體들은 (表 2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타의 地方輸出業體에 비해서 輸出方式에 있어서 代行輸出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 전체輸出의 10% 정도가 단순대행輸出을 하는 것으로 이는 輸出대행업체에 輸出을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의 경비가 소요되어 輸出費用을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要因이 되고 있어 이 또한 濟州道 輸出의 問題點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輸出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輸出上의 問題點은 濟州道 輸出業體가 극히 영세하기 때문에 貸金水準이 낮아서 輸出專門人力을 고용하기가 어려운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表 25〉 輸 出 方 式

地域	직접輸出 + 生 産	직접수출+ 로칼공급+ 생 산	로칼공급 + 생 산	단순대행	기 타	
부 산	31.9	48.9	11.5	5.5	2.2	100(%)
인 천	23.1	73.1	3.8	-	-	"
광 주	50.0	37.5	12.5	-	-	"
대 전	26.3	68.4	-	-	5.3	"
충 남	45.5	27.3	27.3	-	-	"
경 북	21.3	52.5	24.6	1.6	-	"
제 주	55.0	30.0	5.0	10.0	-	"
전 체	32.4	47.4	16.1	2.5	1.6	"

〈資料〉: 大韓商工會議所

그리고 資金調達面에서도 〈表 26〉, 〈表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道 輸出業體의 경우 사채를 통한 資金조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濟州道 輸出業體들이 극히 영세한 데서 담보제공 能力이 약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濟州道 輸出業體들의 규모가 극히 영세한 데서 파생될 수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貿易專門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자금난으로 열악한 輸出여건에 처해 있는 輸出業體들에 대하여 稅制, 金融上의 혜택 및 道 당국의 行政上의 지원의 강화를 통한 濟州道 輸出業體의 경쟁력 提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輸出伸張에 대한 展望 역시 불투

명하다 하겠다.

〈表 26〉 資金調達源

地域	항목 지방은행	일반시중 특수은행	제2금융권	사 채	기 타	
부 산	26.5	65.4	5.4	1.6	1.1	100 (%)
인 천	3.6	78.6	10.7	-	7.1	"
광 주	12.5	87.5	-	-	-	"
대 전	16.7	83.3	-	-	-	"
충 남	-	100.	-	-	-	"
경 북	14.2	78.3	4.2	-	3.3	"
제 주	23.5	29.4	11.8	23.5	11.8	"
전 체	16.0	76.5	4.2	1.4	1.9	"

〈資料〉 : 大韓商工會議所

〈表 27〉 資金調達上の 檢路事項

地域	항목 복잡한 용자절차	담보부족	금융한도 부 족	금융비용 과 중	대출홍보 부 족	기 타	
부 산	29.5	21.8	27.6	16.0	3.2	1.9	100 (%)
인 천	59.5	13.5	18.9	8.1	-	-	"
광 주	14.3	42.9	14.3	14.3	14.3	-	"
대 전	29.4	17.6	29.4	23.5	-	-	"
충 남	33.3	44.4	11.1	11.1	-	-	"
경 북	32.4	18.5	39.1	8.3	0.9	0.9	"
제 주	25.0	68.5	-	6.3	-	-	"
전 체	32.0	23.8	29.1	11.7	1.6	1.8	"

〈資料〉 : 大韓商工會議所

四. 濟州道 輸出産業의 育成方向

以上에서 濟州道 輸出의 實態에 關하여 産業構造 및 輸出構造의 側面에서 分析하여 보았는데 濟州道 輸出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問題點들은 産業構造上 第2次産業이 極히 낙후한 데서 派生되는 것들이며, 그 結果, 濟州道の 輸出構造 역시 水産物 등 몇개의 限定된 品목에 偏重되고 있으며 또한 輸出業體의 규모도 極히 영세하여 자체적인 Marketing 能力이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現實的인 輸出여건하에서는 當국의 積極적인 輸出지원政策이 없이는 앞으로도 비약적인 輸出伸張은 낙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이와 같은 産業構造 및 輸出構造下에서는 濟州 地域經濟의 균형있는 成長과 地域住民의 所得增大 및 취업構造의 擴大에도 많은 限界點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向後 輸出을 통한 濟州道民의 所得安定과 취업構造의 質的 向上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濟州地域이 他地域에 비해 有利하며 成長잠재력이 있는 部門을 中心으로 다음과 같은 方向에서 輸出育成政策이 추진되어져야 하며 나아가 産業構造上 내재되고 있는 問題點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1. 감귤의 輸出産業化

아열대적 氣候條件을 바탕으로 한 때 「황금의 열매」, 「대학나무」로 불리어지던 감귤은 '88년도 현재 濟州道 全域에 걸쳐 1만7천ha의 면적에서 41萬2千톤의 生産量을 수확, 粗收益, 2,105억의 收入을 올림으로써 道内 農家所得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濟州地域經濟의 활성화에도 절대적인 기여를 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감귤 産業은 價格波動과 함께 外國産 農産物의 輸入開放에 직면, 販路擴大에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濟州감귤의 問題는 濟州地域經濟의 死活과 직결되는 問題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감귤價格의 安定과 安定的인 供給의 擴大를 통한 農家所得의 安定的 확보를 위해서는 感귤問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方案이 강구되어져야 하는 바, 그 代安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感귤의 輸出産業化라 할 수 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方案으로서

첫째, 感귤加工施設의 확충 및 施設의 現代화를 통하여 感귤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배양, 輸出商品化를 도모하는 길이다. 感귤의 경우, 바나나와 파인애플과는 달리 적절한 기술이 뒷받침된 고품질생산이 이루어진다면, 外國산 感귤과 比較해 볼 때 충분한 국제경쟁력이 있

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감귤의 가공처리과정에서 생산성의 향상 및 품질의 고급화를 이룬 다양한 종류의 감귤가공제품의 개발, 이 제품을 東南亞 등 해외로 수출하는 政策的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밀감과립 주스의 경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87, '88년 兩年에 걸쳐 1,195千달러의 輸出實積을 기록하여 단일의 品目으로서 높은 輸出實積을 올렸던 바, 이는 輸出잠재력이 충분히 있음을 反證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감귤가공업의 育成은 감귤의 가공처리과정에서 어떻게 加工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느냐에 따라 製造業의 발달도 가져올 수 있어 濟州地域經濟의 安定基盤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所望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둘째, 輸入감귤 농축액과 바나나 등 農産物 輸入 Quota 制를 濟州道産 감귤輸出實積과 연계시킴으로써 감귤의 輸出을 制度的으로 확보하는 方案을 들 수 있다. 현재 濟州道産 가공용 감귤의 수매실적에 따라 주스원료인 수입 감귤 농축액이 할당 배분되고 있는 것을 制度的으로 더욱 보완 發展시켜서 감귤의 輸出實積에 따라 外國産 農産物 輸入 Quota 량을 배분, 할당받을 수 있도록 國內의 外國産 農産物 輸入會社들에게 強요함으로써 감귤의 輸出을 制度的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며 同時에 濟州道産 감귤의 대응輸出과정에서 감귤의 해외시장의 개척과 販路의 可能性이 더욱 용이하게 모색되어 지리라 여겨진다.

이웃국가인 日本이 自國産 온주밀감의 對美輸出을 위해 연간 43억엔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보조, 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고 키위의 生産國인 뉴질랜드 역시 자국산 販賣를 위한 戰略을 세우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도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대응戰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戰略으로의 方向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2. 水産物의 輸出基盤強化

濟州道는 4面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어 水産資源이 풍부할 뿐만아니라 특히 濟州道 연안은 無公害海域이어서 濟州道産 水産物이 갖는 鮮度가 매우 높아 外國의 消費者들의 기호를 충분히 충족시켜주고 있다. 그 結果, 水産物의 輸出은 濟州道 總輸出에서 약 60% 이상이나 차지하는 압도적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魚民所得의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 濟州道 연안어장의 水産資源이 고갈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水産資源의 고갈현상은 무분별한 채수방류와 開發 등에 의한 제1종 공동어장 오염을 비롯, 다른 지방의 안간망魚船 등의 제주도 연안에서의 남획에 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濟州道 水産物의 지속적인 輸出여부와 직결

된다고 하겠다.

한편, 濟州道の 魚船세력은 '89年 현재 魚船 2천 18척 가운데 연안어업어선이 1,736척으로 전체의 86%, 근해어업어선이 2백 57척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t 미만의 영세어선은 1,767척으로 전체의 87% 이상을 차지하여 제주도 어선의 대부분이 극히 영세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는 결국 연근해어장조업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水産資源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족자원의 보호라는 次元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魚船증통규제조치에 기인하는 것인데 濟州道の 경우, 다른 지방의 저인망이나 안강망어업 형태와는 달리 연승 및 채낚기어업을 위주로 하는 어업 형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어선증통규제조치는 제주도 어업의 특수한 실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濟州道 水産物の 輸出增大 및 濟州道 魚民의 所得增大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行政당국은 濟州魚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 현재 실시되고 있는 魚船증통규제조치를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하여 濟州漁船의 大型化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特別히 活魚에 대해서는 畜養場을 설치하여야 겠다. 주로 活魚로 일본에 輸出되는 소라, 전복은 아직도 약식보다는 採捕에 의존하고 있어서 어획량의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수요와 供給이 불균형을 이룸으로써 價格의 起伏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畜養場을 설치, 계획적인 輸出을 통해 輸出가격의 안정화를 기할수 있도록 해야 겠으며, 행정당국은 畜養場 등의 설치에 따른 자금 및 기술상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觀光土産品の 輸出商品化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工産品 部門의 輸出은 70年代中半 이후 계속적으로 높은 伸張率을 유지하면서 增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 部門에서 잠재적 顯在的 外國需要가 많기 때문이며 成長잠재력 또한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濟州道에서 輸出되고 있는 工産品の 대부분은 外國産 또는 陸地에서 生産되어 본도에 반입되는 공산품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部門에서의 輸出이 濟州道民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에 대한 效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濟州道가 國際自由觀光地로 지정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觀光産業은 濟州道の 成長主導産業이며 全國的인 次元에서 지원받는 정책産業이기 때문에 來道하는 外國人관광객의 수는 앞으로 계속 增加추세를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濟州道の 工産品の 輸出增

大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所得增大 및 고용창출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濟州道産 特有의 觀光土産品 및 공예품의 輸出을 觀光産業과 연계시킬 수 있는 方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濟州道에서 生産, 販賣되는 土産品 및 공예품은, 外國人 觀光客의 필요와 慾求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濟州의 歷史, 민속, 풍물을 응집시켜 표현함은 물론 濟州에 대한 애정과 향수를 오랫동안 간직하게 해주는 매개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製品開發이 이루어져야 하며 同時에 濟州道産 特有의 우수 공예품 등의 輸出商品化를 위한 Marketing 戰略을 官·民이 합동으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觀光土産品, 공예품의 生産 및 輸出業體에 대해서는 稅制 및 金融上의 혜택과 함께 기술지원을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濟州道の 地方特化産業으로 發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輸出業體에 대한 支援強化

濟州道 輸出業體에 대한 實態分析의 結果에서 보여 주고 있듯이 濟州道 輸出業體들은 그 규모가 극히 零細하여, '89年度 現在 貿易業이 許可된 25個의 輸出業體中 輸出實積이 100萬\$ 以上인 業體는 불과 5個業體에 불과하며, 그 나머지 業體들은 그 대부분 輸出業體로서의 영속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취약한 實情이다. 規模의 零細함으로 인해서 濟州道 輸出業體들은 資金調達에 있어서, 까다로운 담보條件과 保證條件, 適期借入의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結果的으로 輸出專門人力 확보의 어려움과 自體的인 輸出 Marketing 能力의 결여 등으로 나타나 輸出上의 상당한 險路要因이 되고 있다.

輸出 Marketing 活動은 輸出業者가 外國의 有望한 시장과 유력한 거래처를 選定하고 취급商品을 廣告·宣傳하는 한편, 취급商品의 販路를 開拓, 擴大시킴으로써 收益을 增大시키는 일련의 活動을 意味한다. 따라서 輸出 Marketing 活動에 있어서 輸出商品에 대한 輸出市場의 환경, 경쟁狀態, 고객 등에 대한 체계적인 分析은 需要變化에 따른 需給計劃을 합리적으로 세우고 適期에 安定價의 販賣活動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輸出市場에 대한 체계적인 分析과 아울러 輸出商品에 대한 廣告 및 宣傳活動은, 濟州道 輸出에 있어서 輸出의 增大 및 安定的이며 지속적인 輸出을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課題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적인 輸出 Marketing 活動을 展開하는데에는 상당한 費用부담의 問題가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濟州道 輸出業體들의 Marketing 能力을 提高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輸出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輸出業體들중 外貨稼得 및 道内の 고용創出 등의 效果가 相對的으

로 큰 業體들을 輸出特化業體로 지정하거나, 輸出業體의 統廢合을 이루도록 하여 이들 業體에 대해서는 規模의 擴張을 위한 稅制 및 金融上的 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輸出專門人力의 확보 및 輸出 Marketing 活動을 위한 諸般 政策的 支援이 行해져야 하겠다.

5. 戰略的 輸出産業의 育成

濟州道는 立地的 與件의 不備와 公害問題 등으로 製造業의 育成은, 濟州道の 長期發展方向에서 볼 때 여러 部門과 衝突되고 있어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無公害地域을 영구보존하면서 濟州地域經濟의 均衡的 發展과 고용機會의 확대 및 所得增大를 기하기 위해서는 長期的으로 技術集約的 無公害産業을 誘致하여 高附加價値 製品을 生産·輸出할 수 있는 첨단기술産業의 유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開放化·國際化 時代에 즈음하여 펼쳐 질 環태평양경제권에서의 國際貿易의 요충지로서 立地的 與件의 可能性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진다.

五. 結 論

一般的으로 地域經濟의 成長은 그것이 他地域에 비하여 갖는 比較優位의 觀點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데 濟州道の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濟州地域經濟의 成長 역시 濟州道가 갖는 比較優位를 최대한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主導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濟州道の 경우, 濟州道가 지닌 풍부한 天惠의 自然景觀과 氣候의 好條件에 바탕을 둔 觀光産業 및 1次産業에 의해 成長이 主導되어 왔다. 反面에 製造業의 경우, 濟州道가 國際的 觀光地라는 特性으로 因하여 産業公害가 심한 製造業은 立地選定의 制約과 함께 成長잠재력에 많은 限界가 있었다.

濟州道の 이러한 立地的 여건으로 말미암아 濟州道는 全國의 輸出主導의 成長政策的의 過程에서 빼놓이지는 혜택에서 소외되었고, 그 結果 2次産業에 극히 낙후된 産業構造를 갖게 되었으며 輸出構造 역시 水産物 中心인 後進的 輸出構造를 갖게 되었다.

그동안 濟州地域의 産業構造 불균형이 特定産業, 特定部門에 대한 政策的 배려의 結果였다면, 行政당국은 그로 인하여 야기된 政策的 結果에 따른 問題點 또한 개선해 나가야 할 政策的 배려 또한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濟州道 産業構造 및 輸出構造下에서는 濟州地域經濟의 균형있는 成長과 地域住民의 所得增大 및 취업기회의 擴大 등에 많은 問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問題點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向後 濟州道가 他地域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앞으로 成長잠재력이 있는 部門을 中心으로 보다 적극적인 輸出育成政策을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결과, 濟州地域經濟의 活性化는 물론이고 濟州道の 실정에 알맞는 輸出의 여건과 그 기반이 확립되고 나아가 점점 밀려드는 開放化 및 國際化 時代에 부응하는 國際貿易의 요충지로서의 立地的 여건의 可能性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觀點에서의 向後 濟州道 輸出의 育成方向은,

첫째, 감귤가공처리시설의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감귤상품의 국제경쟁력의 배양 및 輸出産業化의 추진이다.

둘째, 外國産 農産物 輸入Quota 制와 濟州道産 감귤의 輸出실적과의 연계貿易을 통하여 감귤의 輸出을 制度的으로 확보하는 方案이다.

셋째, 水産物의 지속적인 輸出增大를 위한 魚船의 증톤 및 大型化의 추진과 畜養場의 설치, 그리고 그에 따른 行政上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겠다.

넷째, 觀光産業과의 연계를 통한 濟州道産 觀光土産品 및 공예품의 輸出商品化의 추진이다.

마지막으로, 既存 輸出業體에 대한 支援을 더욱 強化하고, 濟州道の 立地的 與件에 알맞는 무공해 첨단기술산업 등의 유치를 통한 戰略的 輸出産業을 育成하는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A. D.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1961.
- Colin Clark,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Macmillan & co, Ltd, 1957.
- C. TIEBOUT, The Community Economic Base Study, New York CED, 1968.
- 金文瑄, “濟州道 産業構造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社會發展研究」 創刊號, 濟大社會發展研究所, 1985.
- 文元錫, “濟州道 特産物의 輸出增大方案에 관한 研究 ” 濟州大學校論文集, 第16輯, 1983.
- 濟大社會發展研究所, 「社會發展研究」 第5輯, 1989.
- 朱鶴中, 趙淳, 「韓國經濟의 理論과 現實」 서울大學校出版部, 1987.
- 濟州商工會議所, 「濟州經濟現況」, 1988.
- 經濟社會開發院, 「經社院 포럼」, 1989. 1.
- 濟州市水産業協同組合, 「濟州道水協史」 1989.
- 濟州道, 「濟州통계연보」, 1988.
- 濟州道, 「濟州道」, 통권 第84號, 1989.
- 濟州道, 「濟州道誌(上, 下)」, 1982.
- 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 1988.
- 大韓商工會議所, 「地方貿易環境實態와 活性化方案」, 1989.
- 朴仁鎭編譯, 「地域經濟分析」 嶺南大學校出版部, 1984.
- 黃明燦, 「地域開發論」 法文社, 1989.
- 濟州大學校 社會發展研究所, 「地域發展의 方向과 課題」, 1985
- 金泰保, 「濟州經濟의 構造的 特性과 成長展望」, 中央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
- 濟州道, 輸出計劃, 1970 ~ 1989.